

# 지정합침법에 의한 명사조성과 그 특징에 대한 분석

정 래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새 단어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55페이지)

세상에 자랑할만 한 우수한 우리 말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면 시대정신과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를 잘 반영한 새로운 단어들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말 단어조성의 원리와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는 명사를 대상으로 그 구성에 리용되는 우리 말 토와 그 특징을 분석하려고 한다.

명사는 대상, 현상을 직접 이름지어 나타내는 품사로서 조선어어휘구성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말에서 명사는 언어생활에 많이 쓰이고 의미구조가 다양할뿐아니라 현대조선어에 작용하는 단어조성수법들이 거의다 적극적으로 적용될수 있으므로 새 단어조성이 매우 활발한 품사이다.

례; 금수산태양궁전, 청년강국, 미래상점, 처녀어머니 ... 합침법  
울사과, 참사람, 혁명성, 당성, 덧붙이, 뚫고추 .....덧붙임법  
맛→덧, 자강도→자랑도, 너럭바위 → 바위너럭 ...바꿈법  
직업총동맹 → 직맹 .....락어법

새로운 명사의 조성은 위의 실례들에서 본바와 같이 2개이상의 말뿌리들이 서로 합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하나의 말뿌리에 비자립적인 덧붙이가 첨가되어 이루어질수도 있으며 때로는 본래의 명사안에서 소리나 자리를 바꾸든가 아니면 일정한 문자나 음절을 따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질수도 있다.

여러가지 명사조성수법들가운데서 합침법은 그중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명사조성에 참가하는 말뿌리들이 다른 품사의 말뿌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수가 대단히 많으며 말뿌리의 독자성으로 하여 서로의 결합가능성이 매우 풍부하기때문이다.

말뿌리들의 합침으로 합성명사가 이루어진다.

합침법에는 2개이상의 말뿌리들이 아무런 토의 첨가도 없이 기계적으로 합쳐지는 경우와 말뿌리들사이에 일정한 토가 첨가되면서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단어조성에 참가한 형태부들중의 일부(또는 전부)가 문법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합쳐지는 단어조성수법을 지정합침법이라고 한다.

례; 맺는말 : 맺(다)+는+말  
규정토  
쳐넣기 : 치(다)+어+넣(다)+기  
접속토

우리 말에서 지정합침법으로 명사가 조성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첫째로, 11가지 체계의 우리 말 토들가운데서 무려 8가지의 토들이 지정합침법에 의한 명사의 조성에 참가한다는것이다.

명사조성에 참가하는 우리 말 토들로서는 격토, 도움토, 종결토, 접속토, 규정토, 상황토, 존경토, 상토 등이 있다.

격토-귀에말, 옆에집, 거꾸로서기, 우로오르기  
도움토-나도국수나물, 나도밤나무, 너도방동사니, 너도제비란  
종결토-먹자판, 죽자내기, 보라장기, 받들어총, 영접들어총  
접속토-던져넣기, 들어온말, 찾아보기, 띄어쓰기, 꺾어돌아나가기  
규정토-큰길, 군밤, 짧은이, 단고기, 된장, 멜가방, 단맛, 가는비  
상황토-굽게깨기, 넓게심기, 배게뿌리기, 좁게보이기, 크게보이기  
존경토-어르신네, 늙으신네  
상토-갈림길, 단긴회로, 끼움먹이약, 줄임문, 먹임판, 묻힘약

우리 말 토들가운데서 복수토, 시간토, 바꿈토 등의 토들은 명사의 구성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러한 토들이 나타내는 《복수》라든가 《시간》그리고 《단어형태의 바꿈》이라는 의미기능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의미기능은 한 단어안에서의 말뿌리결합과는 거리가 먼것이다.

둘째로, 우리 말에서 규정토가 지정합침법에 의한 명사조성에 가장 많이 참가한다는 것이다.

명사조성에 참가하는 체언토는 격토와 도움토이다.

격토들중에서 속격토, 여격토, 조격토에 의한 명사조성은 모두 50여개정도이며 도움토에 의한 명사조성은 60여개정도이다.

명사조성에 참가하는 용언토는 종결토, 접속토, 규정토, 상황토, 존경토, 상토 등인데 그중 종결토에 의한 명사조성은 10개정도, 접속토에 의한 명사조성은 280여개이며 상황토와 존경토, 상토 등에 의한 명사조성은 각각 10개, 2개, 80여개정도이다.

그런데 규정토에 의한 명사조성은 무려 3 800~3 900여개로서 지정합침법으로 조성되는 명사의 거의 80%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말 규정토는 량적으로 볼 때 다른 토들에 비할바가 없이 대단히 많은 수의 명사조성에 참가한다.

규정토들가운데서 《는, ㄴ/은, ㄹ》등이 명사조성에 참가한다.

례; 는 ……… 곱하는수, 먹는물, 우는소리, 아는수, 가는뻐, 보는각

ㄴ/은 ……… 노린내, 먼바다, 단고기, 찬서리, 큰물피해, 굶은일

ㄹ ……… 뻐감, 건딜성, 데릴사위, 갈길, 길짐승, 당길힘, 먹을복

이가운데서도 명사의 구성에 가장 많이 참가하는 규정토는 《ㄴ/은》이다.

자료적으로 보면 규정토 《는》은 모두 170여개, 규정토 《ㄹ》은 200여개정도의 명사조성에 참가하지만 규정토 《ㄴ/은》은 무려 3 400여개의 명사조성에 참가하였다. 그것은 문법적의미와 결합조건에서 규정토 《는》과 《ㄴ/은》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것과 관련된다.

두 규정토를 대비해볼 때 《ㄴ/은》이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다 첨가될수 있는 반면에 《는》은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첨가될수 없다.

그러나 《없다》의 경우에는 《는》이 붙을수 있다.

례; 혁명적신념이 없는 사람은 난관앞에서 쉽게 굴복할수 있다.

형용사에 규정토 《는》이 붙어서 쓰이게 되면 그것은 이미 동사화과정을 밟은것으로 된다.

례; 날이 밝는 시간에 맞추어서 강을 건너갔다.

토들이 나타내는 상대적시간의 의미를 대비해볼 때도 규정토 《ㄴ/은》은 동사인 경우에 과거, 형용사인 경우에 현재로서 다른 규정토들이 나타내는 시간보다 그 포괄범위가 훨씬

씬 더 넓다.

이처럼 우리 말 명사들가운데서 규정토 《ㄴ/은》이 첨가되어 만들어진 명사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례; ㄴ - 단간장, 된때, 비린내, 단나물, 빈터, 찬서리, 노란자위, 된벼락, 된바람  
은 - 붉은기, 끈은길, 굵은날, 낡은말, 높은모음, 늙은이

규정토 《던》은 명사의 구성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자체가 상대적인 과거지속이라는 문법적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것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셋째로, 지정합침법으로 이루어진 명사들가운데는 학술용어, 전문용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는것이다.

대표적으로 규정토 《은》이 첨가되어 이루어진 명사들을 보면 여기에는 무려 250여개의 학술용어, 전문용어들이 있다.

례; 붉은가는배애기벌, 붉은가슴논종다리, 붉은가슴큰부리새, 붉은가슴풀모기, 붉은가슴혹거미, 붉은가슴알도요, 붉은가슴올타리새, 붉은가시팔기, 붉은가재미, 붉은간그릇, 붉은갓버섯, 붉은강남콩, 붉은강도미, 붉은거북, 붉은그릇버섯, 붉은금방울새 ...

규정토로 이루어진 명사들은 위의 실례들에서 보는것처럼 고유한 우리 말뿌리들을 서로 이어주는것으로 하여 전문적인 학술용어들이라도 그것을 어렵고 힘든 한자말로 표현했을 때보다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 수법은 말다듬기나 어휘정리사업에 아주 효과적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례; 적암(赤岩) → 붉은바위  
흑교(黑橋) → 검은다리  
홍색(紅色) → 붉은색, 빨간색  
오염견(汚染菌) → 물든고치  
부력(浮力) → 뜰힘  
각전(-錢) → 잔돈

넷째로, 지정합침법으로 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성구조에서도 특이한것이다.

토에 의하여 서로 결합되는 바탕말 말뿌리들은 그 대부분이 자립적인 말뿌리들이다.

이때 말뿌리들의 품사성질은 같을수도 있고 서로 다를수도 있다.

- 같은 품사의 말뿌리들끼리

- 돌려깎기, 눌러깨기, 당겨뽑기, 물어뜯기, 이어달리기, 실고부리기, 귀에고리, 삼의웃음, 평의다리, 벌의둥지, 알아맞추기

- 서로 다른 품사의 말뿌리들끼리

- 끼움말, 줄임문, 감김손, 아는수, 당길힘, 같은비, 배게뿌리기, 뿜어사격, 나도붉은김, 앞으로빼앗기, 대고때리기, 짠물, 찬찜질

지정합침법으로 만들어지는 명사에서 말뿌리는 대부분 두개정도가 기본이지만 때로는 3개이상 있는 경우도 있다.

례; 눈감고달리기, 굳어진말, 바늘 꿰고달리기, 넘겨주고받기, 룬끼고달리기, 나도국수나물, 나도물벼룩, 게움먹임약, 들어온말, 붉은가는배애기벌, 꺾어돌아나가기, 물에 뛰어들기

이때 말뿌리들사이에 토는 하나만이 아니라 2개 또는 그 이상 여러개도 첨가될수 있다.

물론 일부 명사들의 경우에는 바탕말뿌리들이 자립적인 말뿌리가 아니라 불완전명사나 뒤불이와 같이 비자립적인 경우들도 있다.

례; 몸에것: 몸+에+것(불완전명사)

덮을것: 덮(다)+ㄷ+것(불완전명사)

다른데: 다르(다)+ㄴ+데(불완전명사)

내밀성: 내밀(다)+ㄷ+성(뒤불이)

짜임새: 짜(다)+이+ㅁ+새(뒤불이)

지정합침법으로 명사가 조성될 때 조성수단들을 결합하는 방식은 문장에서 단어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거의 같다.

례; 키큰모 : 키+크(다)+ㄴ+모

멜가방 : 메(다)+ㄷ+가방

건넌방 : 건너(다)+ㄴ+방

큰집 : 크(다)+ㄴ+집

우리는 단어조성에서 나타나는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잘 알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말을 보다 더 정확하고 의의있게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